

〈서 평〉

D.G. Savage 著
“右回轉-렌퀴스트大法院의 構築”⁽¹⁾

安 京 煥*

1. 머 리 말

무수한 문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해 쓰고 있다. 단행본만 하더라도 일년에도 수백 권씩 출판된다. 이들이 다루는 세부주제도 대법원의 역사, 특정법 이슈에 관한 체계적 연구, 특정 판사의 법사상에 관한 연구, 특정 판결의 영향에 관한 예측 등등 실로 다양하기 짝이 없다. 각종 학술잡지 및 신문에 나타난 문헌까지 포함시키다면 실로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저술자의 직업도 다양하다. 법률전문가는 물론 정치학도, 언론인, 종교인, 소설가 등으로 모든 국민이 제각기 대법원에 대한 소신을 편다.

이방인 법학도의 입장에서 본 미국 헌법은 감히 범접하기 힘든 어려운 거대한 山脈이요 大河다. 그랜드 케년이나 옐로 스톤, 미시시피강을 가까이서 대할 때 받는 망연한 억압감이 미국 헌법을 천착하고자 하는 법학도를 누른다. 거대함에 있어서 질적 차이가 있다면 자연은 미국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天惠의 祝福인 반면 헌법은 200여년에 걸쳐 미국의 민주주의가 끊임없는 일상을 통해 건설해 온 인고의 결실이라는 점일 것이다.

미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과정으로, 기관으로서의 연방대법원과 그 구성원인 개개 판사에 대해 친밀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屬性的으로 非民主的 機關”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²⁾ 미국의 민주주의의 향방을 중국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이고, 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을 향로는 조타수인 개개 판사가 결정짓기 때문이다.⁽³⁾

1986년 10월 이래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7년간 원장으로 재직하던 Warren Burger(1969~1986 재직)가 미국 헌법 제정 200주년 기념 행사의 준비위원장의 직을 맡아 일선에서 은퇴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논란 끝에 Willam Rhenquist(1971이래 재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助教授

(1) David G. Savage, *Turning Right—The Making of the Rhenquist Supreme Court*—(John Wiley & Sons Inc., 1992), 473 page.

(2) “inherently anti-democratic and anti-majoritarian institute”, A. Bickel, *The Least Dangerous Branch* (Yale Univ. Press, 1986); J. Choper, *Judicial Review and National Political Process* (Chicago Univ. Press, 1980) 등.

(3) 이 책에서도 “대법원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그 곳에 근무하는 판사를 바꾸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p. 8.

직)를 원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Rhenquist의 원장 승계는 Nixon-Ford-Reagan으로 이어지는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이 Burger법원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보수사법혁명을 더욱 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작전으로 인식되었다.

아직도 Warren법원(1953~1969)의 신화가 남긴 유산을 마그나 카르타로 신봉하는 진보 세력에게나, 이를 설익은 인본주의의 이상의 실패한 실험정도로 간주하는 보수세력에게나 렌퀴스트의 사령관 취임은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 것이다. Dickens의 말을 빌리면 전자에게는 최악의 시대, 후자에게는 최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⁴⁾

이어서 Warren법원의 최후의 두 파수꾼인 Thurgood Marshall(1967~1991 재직), William Brennan(1956~1990 재직)이 세월과의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은퇴했고 후임자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그들보다 보수적인 인물로 대체되었다. 이제 마야호르 대법원은 보수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⁵⁾

Rhenquist법원에 관한 자료는 양산되고 있다. Rhenquist 자신도 대법원의 역할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정식으로 세상에 알린 적이 있다.⁽⁶⁾ 또한 지난 6년간은 대법원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대법원의 인적 구성에 큰 변동이 발생한 기간이므로 판사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각종 에피소드를 통해 미국이 헌법과 대법원, 나아가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Rhenquist법원에 관한 무수한 문헌 중에 Savage의 右回轉(*Turning Right*, 1992) 만큼 이방인 법학도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문헌은 많지 않다. 제목이 웅변하듯 이 책은 보수우익법원으로서의 렌퀴스트법원의 최초 5년간의 모습을 조감해 준다. 내용상의 특성으로 최소한 아래의 네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전문 헌법 학도를 위한 책이 아니라 헌법과 대법원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를 위한 저술이다. 저자 자신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언론인이다. Rhenquist의 취임과 동시에 대법원출입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직접, 간접으로 개별 판사와 연구관들과 접촉하게 되었고⁽⁷⁾ 이 시기 동안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의 이면에 담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함께 담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한 때 미국 전체를 휩쓸었던 “대법원의 이면사”라고

(4) Charles Dickens, *A Tale of Two Cities*(1859) Ch. 1 첫문장.

(5) 1993년 1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연방대법원 판사의 명단은 원장 William H. Rhenquist (1971년 이래 재직, 1986년 이래 원장)와 Byron White(1962), Harry Blackmun(1970), John Paul Stevens(1975), Sandra Day O'Connor(1981), Antonin Scalia(1986), Anthony Kennedy(1987), David Souter(1990) 및 Clarence Thomas(1991)의 9인이다(괄호안은 임명년도). 이 중 Blackmun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는 중도 내지는 보수주의자로 일반적으로 분류된다.

(6) W.H. Rhenquist, *The Supreme Court: How It Was, How It Is* (William Morrow & Company, Inc., 1987) 이 책에서 Rhenquist는 자신의 사법철학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판결에 임하는 판사로서의 자세를 더욱 강조하는 듯한 외향을 풍긴다. 그러나 이면에 담긴 그의 견고한 보수철학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7) 저자는 *The Los Angeles Times*의 연방대법원 출입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부제한 「동료 판사들」(*The Brethren*)⁽⁸⁾의 隔世 續篇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것 같다.

둘째, 이 책은 전문적인 헌법이론의 심층적 분석보다는 판결에 참가한 대법원판사 하나 하나의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더욱 주력했다. 이 점도 「동료 판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동료 판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인물을 불균형적으로 부각시키거나 매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극적인 요소가 적다.⁽⁹⁾ Michigan 법대의 형법 교수 Yale Kamisar도 이 책을 일러 “지극히 균형 감각을 유지한, 박진감에 넘치는, 대법원의 심층 분석”이라고 평하고 있다.⁽¹⁰⁾

셋째, 이 책은 대법원과 판사, 그리고 판결에 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법무성 관리, 백악관 보좌관, 변호사협회, 상원 의원 등 판사의 임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여타 기관의 역할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인준에 성공한 Rhenquist, Scalia, Kennedy, Thomas, Souter의 경우는 물론, 인준에 실패한 Bork와 Ginsberg의 인준 청분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최종 후보자의 명단을 제시하기까지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인준 작전”을 위해 골몰하는 과정이 박진감있게 묘사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政治的 法”인 憲法을 판단하는 기관인 대법원에 새로운 구성원이 등단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政治的 過程”으로서의 임명절차가 생동감 있게 조명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구성원의 변동이 거의 없었던 시기를 다룬 동료 판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측면이다.⁽¹¹⁾

넷째, 외국인의 입장에서라도 큰 고통없이 읽을 수 있는 평이한 문장으로 저술되어 있다. 대륙법의 제도와 용어에는 비교적 익숙하나 미국의 법제나 전문적인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나라의 법학도에게는 미국법에 관한 그 어떤 문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이 책은 대법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지식⁽¹²⁾과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 미국인 정도의 상식만을 요구할 뿐이다. 한국의 법학도에게는 전문적인 학습의 예비서로는 물론 단순한 破閑거리로도 유익한 책으로 생각된다.

(8) B. Woodward & S. Amstrong, *The Brethren-Inside Story of Supreme Court*(1969~1975)-(Simon & Schuster, 1976). 특히 저자 중의 1인은 Nixon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Watergate 사건”을 파헤친 주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9) *The Brethren*의 저자는 담긴 내용 전부가 실화라고 주장하나 실화와 허구가 절반가량씩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 책에서 어떤 판사를 가장 부각시켰느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Burger원장을 불균형적으로 매도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10) 표지 jacket 후면에서 재인용.

(11) *The Brethren*이 다룬 마지막 개정기인 1975년에 William Douglas(1939~1975 재직)가 퇴임하고 John Paul Stevens(1975~현재)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Douglas의 퇴임의 극도의 논란거리였던만큼 Stevens의 임명은 지극히 간략하게 만장일치의 표결로 상원의 인준을 얻었다. *The Brethren*, pp.367-402 참조.

(12) 연방대법원의 운영규칙은 Joel D. Joseph, *Black Mondays-The Worst Decisions*(1987)의 한국어판인 서울대학교 미국헌법연구회 편역, *재앙의 월요일—사상 최악의 판결들*, 교육과학사(1992)의 부록(239-283면)으로 소개되어 있다.

2. 概要 및 短評

(1) 본문 458면의 이 책은 총 5장 11절에다 별도의 종장(Epilogu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1987년 여름”은 ‘把守兵의 交替’(제 1 절)와 ‘法院—過去와 現在’로 양분되어 있다. 1절에서는 Burger-Rhenquist원장 승계와 Scalia의 동반임명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제 2 절은 주로 민권법(Civil Rights Acts)과 인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Brown판결(1954)이후 이 해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여론과 법원의 태도의 변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선임원장 Rhenquist의 철학을 전기적 자료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세기의 천재 법조인⁽¹³⁾”으로 불리는 렌퀴스트를, 가능하면 현임 대법관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지 않는 관행을 깨어 가면서까지 원장으로 승진 임명한 것은 철저한 보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버거의 지적 능력이 판결을 통한 보수혁명의 성공적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었었기에, 이에 대한 후속 보완책이었다는 주장은 흥미롭다(pp. 4-6).⁽¹⁴⁾ 헌법 제정 200주년 기념 행사에 특별한 집착을 보이는 버거의 모습(pp. 4-5)이나 판사의 임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법무장관 Edwin Meese의 역할 또한 좀체 전면에서 드러나기 힘든 미국 헌법과 대법원사의 일단면이다.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역할에⁽¹⁵⁾ 대해 절대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은 “정치가가 아닌 판사”로 자리를 채우겠다는 소신이었고 무엇보다도 “司法自制”의 원칙을 준수하는 인물로 렌퀴스트와 스칼리아를 선택했다고 한다(p. 12). 그러나 렌퀴스트는 일관된 보수주의자이기는 하나 결코 일관된 사법자제주의자가 아니다. 그의 사법자제의 외관은 워렌판사들의 진보적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반론으로서 나타난 것이고 자신이 다수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종종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

(2) 제 2 장 “1986~87 개정기”는 ‘브레넨법원의 최후’의 단일 절(3절)로 대체되어 있다. 더글라스의 은퇴(1975)이후 진보 진영의 리더로, 법원이 극우로 급선회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중도성향을 견지하도록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브

(13) 법조인으로서의 렌퀴스트의 탁월한 능력에 대한 찬사는 무수하다. 그 중 이 책에 실린 동료판사 2인의 평을 옮긴다. Stanford법대 시절부터 그의 지성의 노예였던 O'Connor판사는 “그는 언제나 우리보다 한참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파우엘은 “빌만큼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그보다 더욱 학식이 깊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그만큼 자신이 아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p. 10.

(14) 관행상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경우에 현재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판사를 승진임명시키는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렌퀴스트의 경우가 사상 3번째였다). 렌퀴스트의 원장 승진임명 배경과 그의 법사상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로는 安京煥, 법은 사랑처럼, 대법출판사(1988), 239-243면 참조.

(15) 이 점은 Warren법원의 감추어진 표어이기도 했다. 자세한 Archibold Cox, *The Warren Court*(Harvard Univ. Press, 1968); Philip Kurland, *Politics, the Constitution and the Warren Court*(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러셀 겔로웨이, 안경환 역, 개정판 법은 누구편인가?, 교육과학사(1992), 213-230면 참조.

래년의 공적을 더듬음과 동시에 그의 시대의 종말을 확인해 주는 일련의 판결을 소개한다. 특히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과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권 조항에 근거하여 제기된 차별 내지는 積極的 不平等解消政策(affirmative action)의 문제가 제기된 2건의 판결(*Johnson v. Transportation Agency of Santa Clara County*, pp.58-70; *California Federal Savings & Loan v. Mark Guerra, Director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pp.70-80)의 내부 토의과정이 각 판사의 사상 검토와 함께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3) “1987년 여름”이라는 제목의 제 3 장은 로버트 보크(Robert Bork)의 인준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집중 취재한다. “로버트 보크와 지식인의 향연”(4절)이라는 부제가 적절히 대변해 주듯이 보크의 지명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은 미국 사회의 이념 논쟁이었다. 파우엘(1972~1987)의 은퇴로 생긴 공석에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사법적 분신이랄 수 있는 보크로 채우고자 시도한다. 결국 실패로 끝난 인준 과정에서 노정된 보수, 혁신의 이념 논쟁의 과정이 흥미롭게 추적되어 있다.⁽¹⁶⁾

1990년 Bork는 “美國의 誘惑”이란 저서를 통해 “법의 정치적 유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책에서 보크는 “사법우위주의”의 기치 아래 역대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이론에 대해 정교한 비판을 하고 있다.⁽¹⁷⁾ 이 책은 미국의 “전통적 지성과 가치관”을 옹호하는 보수 지성인의 기호에 영합하여 일약 영향력있는 헌법 이론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느낌이다.⁽¹⁸⁾

4) 제 4 장 “1987~1988 개정기”는 3개의 절로 세분되어 있다.

첫번째 절 “제 5의 표를 찾아서”(제 5 절)는 렌퀴스트의 보수사법혁명의 총사령관으로서의 렌퀴스트가 마지막 확실한 동맹군 1개사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대법원의 전황판을 증례하고 있다. *Flynt v. Falwell* 판결의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현역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 특히 외설물에 관한(헌법수정 제 1 조)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둘째 절 “흠없는 신사”(제 6 절)는 인준에 실패한 보크의 대타로 낸 긴즈버그(Douglas Ginsberg) 또한 실패하자⁽¹⁹⁾ 마지막으로 내놓은 “흠없는 인물” 케네디(Anthony Kennedy)

(16) 보크가 특히 일반 세론의 거부를 받았던 것은 Nixon행정부의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면서 Watergate사건의 소추를 담당했던 특별검사 Archibald Cox를 해임함으로써 Nixon의 진실 은폐에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pp.135-137.

(17) Robert H. Bork, *The Tempting of America—the Political Seduction of the Law*(Simon & Schuster, 1990)

(18) “미국 정신의 종말(Allan Bloom, *The Closing of American Mind*, Simon & Schuster, 1987) [이 책은 국내에서 (주)범양사출판부에서 1989년 번역출판된 바 있다]이래 가장 뛰어난 미국 지성에 관한 비판서이다.” “사법우위주의의 원칙에 맞서 제기하는 탁월한 변론서이다” 표지후면에 인용된 *The New York Times*와 *The Washington Post*의 서평.

(19) 긴즈버거는 일반적으로 보크와 같은 극보수주의자로 인식되었으나 판사로서의 경력이 너무 일찍했기에 그의 사상을 판단할 법문헌이 불충분한 것도 인준에 실패한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일반 대중에게는 학생시절 및 초임 교수시절에 마리아나를 피운 사실이 부정적인 요소로 여겨되었다.

가 상원을 통과하여 법원의 제 5 보수판사로 등장하는 과정을 취재하고 있다. 특히 이 절에서는 케네디의 법실무 배경과 관련하여 그의 출신주인 캘리포니아의 정치 기상도를 Edmund Brown, Richard Nixon, Ronald Reagan, Jerry Brown 등의 인물과 관련하여 조명해 주고 있어 흥미롭다.

마지막 절인 “5인방의 탄생”(제 7 절)은 케네디의 합세로 확고한 다수를 확보하게 된 보수세력이 판결을 주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Rhenquist, O'Connor, Scalia, Kennedy의 극보수 4인은 White와 Stevens에게서 필요한 제 5의 표를 공급받는다라는 판결의 기본 패턴을 말하는 듯하다.

(5) 제 5 장 “1988~1989 개정기”는 ‘신다수의 지배’로 명명된 단일 절로 구성되어 있다(제 8 절). 전장에서 기본 구도는 여기에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낙태문제에 관한 중요한 판결인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판결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20세기 후반의 미국 헌정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판결의 하나인 1973년의 *Roe v. Wade*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집필한 Blackmun의 역할과 개인적 배경이 적당하게 판결과 엮어 소개되고 있다(pp. 228-239). 동향인 F. Scott Fitzgerald가 “위대한 개츠비”를 출판하던 바로 그 해에(1925) 블랙먼은 하바드에 수학할 장학금을 확보하여 의사에의 꿈을 키웠다는 에피소드를 포함하여(p. 235).

(6) 제 6 장 “1989~1990 개정기”는 제 9 절 “진보 진영의 마지막 선전”과 제 10 절의 “웨어(Weare)에서 백악관까지”⁽²⁰⁾로 나누어진다.

제 9 절에서는 진보 진영이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두는 몇 건의 판결을 소개한다. 이러한 진보 진영의 승리는 렌퀴스트-스칼리아의 경쟁 의식과 불협화음으로 인한 어부지리라는 착상이 흥미롭다(p. 307). *Roe* 판결에 부수된 쟁점인 미성년자 임신부의 부모에 대해 의사가 낙태의 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 입법의 위헌 여부(*Hodgson v. Minnesota*) (p. 310),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죽을 권리” 문제(*Cruzon v. Missouri*) (p. 313) 등에 관한 판결이 스케치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브레넌이 34년간의 법원 경력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판결(*Metro Broadcasting v. FCC*) 판결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pp. 346-49).

제 10 절은 브레넌의 은퇴로 인해 생긴 공석을 David Souter로 채우는 과정을 정리해 준다.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법무보좌관 Boyden Gray와 법무장관 Dick Thornberger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렇다 할 클라이맥스없이 임명 과정을 처리하고 있다.

(7) 제 7 장 “1990~1991 개정기” 즉 제 10 장 “우익 질주”는 렌퀴스트 법원의 태평성세의

(20) “From Weare To The White House”. 웨어란 Brennan의 후임으로 임명된 David Souter의 고향인 뉴 햄퍼셔주의 소유의 이름이다. 물론 그의 백악관행은 부시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이다.

모습을 다소 무미건조하게 관찰하고 있다. 관찰되고 있는 많은 사건 중에 *Board of Education of Oklahoma City v. Dowell* 판결이 주목을 끈다. 역사적인 *Brown* 판결(1954)이 전면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고 있던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문제가 미결로 남아 있었음을 때늦게 깨닫게 한다. 이 판결로 비로소 법원의 개입으로 인한 인종통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8) 마지막 Epilogue는 “토마스 청문회 이후”로 부제하고 있다. 최초의 “진한 색깔”의 대법관이자 워렌사단의 최후의 잔류병이었던 마샬의 은퇴와 후임자 클레어런스 토마스의 등장, 그리고 이러한 판사 승계의 결과로 대법원은 이제 나라의 제 3순위의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담담하게 결론짓는다.

3. 맺는 말

역대 연방대법원 판사의 사상을, 이들이 참가한 개별 판결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학자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Russell W. Galloway가 지난해 2월 52세의 젊은 나이로 돌연히 사망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판사들의 사상일람표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²¹⁾

갤로웨이의 저술과 같이 통계적으로 검증된 결론적 자료를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장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국 헌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법학도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요점 정리”로는 본질의 이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답을 안다는” 지극히 위험한 자만심을 부추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Savage의 右回轉은 한국의 법학도의 입장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헌법, 미국의 연방대법원, 미국의 판사에 접근하기 위한 예비서로서 가치있는 책이다. 민주사법의 총사령부인 연방대법원의 현장취재이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사상 가장 보수적인 성격의 법원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현임의 Rhenquist법원에 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가치가 크다.

(21) Galloway 교수가 대법원과 개별판사의 판결을 분석한 논문은 1974~1991의 기간에 걸쳐 Santa Clara Law Review에 연재되었고 이들을 축약한 단행본으로 “*The Rich and the Poor in Supreme Court History*”(1982) 및 “*Justice For All?—The Rich and the Poor in Supreme Court History(1790~1990)*”(1991)의 2권이 있다. 두권은 각각 *법은 누구편인가*(고시계사, 1985), *개정판 법은 누구편인가*(교육과학사, 1992)라는 제목으로 필자에 의해 번역 출판되었다.